

##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 I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23. 2. 27.(월) 11:00
- 장 소 :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지하1층)
- 참 석 : 15명 정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출 장 명	참가자	출장기간 (방문국)	비고 (예산부담)
건설소방위원회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9명	3.23. ~ 3.30.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도의회

### II 심사결과

1. 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 출석위원 5명중 가결 5명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 **간사**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총무담당관 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그리고 오늘 심사할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하여 ○○○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은 개인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아무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몇 분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성원이 되었고 또 일정이 보니까 이번 3월에 움직이시는 일정이 되어서,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장계획 심사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출장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아홉 분의 의원이 프랑스·이탈리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출장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출장계획 보고)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늘 심사 때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짚고 생각해 보는 게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다녀와서 그러한 정책들이, 보고 온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장의 필요성 검토를 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유롭게, 시간이 조금, 어떨 때는 두 개의 위원회를 심사해 왔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참고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25일 날 프랑스 샤토니 몽블랑 소방구조대에 견학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산불·산악사고, 그다음 소방구조대의 장비, 전문교육 이런 데를 살펴보시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체크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울진에 산불이 나서 213시간 동안 불이 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축구장 3만 5천 개 규모가 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80대가 동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헬기들이 해가 빠지면 날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13시간 중에 단순 계산하면 절반은 불을 끄지 못한 시간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거든 다른 것도 다 살펴보시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헬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헬기 80대가 야간투시경이 있었다면, 밤에도 불을 꺾으면 절반밖에 시간이 안 걸렸을 것이고 당연히 화재 면적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는 이런 대응 기기가 없다 하더라도, 갔다 오시면 다른 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경북 산하에

있는 헬기를 중심으로 먼저 도에서 도입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해서, 아마 80대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헬기들이 다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야간투시경 한 대가 1억이라면 100억만 하면 될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별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것을 체크하셔서 야간투시경을 구매해서 조종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탕을 하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탈리아 도로청에 가시는데 여기서도 여러 개를 보시겠지만 도로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제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사.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헬기 동원이 안 됩니다. 그냥 렉카가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날씨 또는 얼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십 대의 추돌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래서 이것 역시 소방헬기를 이쪽으로 투입해서 연계시켜서 차량들을 이동시키는, 그러면 부서진 차량은 이동시켜 놓고 그다음에 바로 도로는 소통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해서 이 관계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가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돌아오셔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또는 국가에 제안도 하는 이런 입법활동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인언론사를 방문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복사한 내용을 더 얹어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 내용들은 2016년도지 싶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그때 런던·프랑스에 갔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내외가 하고 있는 런던한인헤럴드에 부탁을 해서 방문지하고 방문내용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두 군데 방문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탈리아 거기 한인언론사 보니까 한인회보를 주로 만들고 있구만요. 여기에 가실 때 우리 경북신공항 홍보를 위한 것 이외에 또 우리 경북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홍보자료를 함께 갖고 가셔서 전달을 하시고 회보에라도 좀 내달라고 부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그 결과를, 그쪽에서 회보에 나오면 그 회보를 좀 보내 달라 해서 역시 회보를 우리 경북도의회 홍보하는 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그 지역에서도 회보에도 내고 언론에도 실어줬다.’ 역시 의회 활동 홍보도, 국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 가십사. 그러면서 여기에 해외에 게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에 굉장히 친 국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비판적인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어쨌든 용어를 좀 정선하셔서, 다 잘하고 용어 몇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방금 주로 질의보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예.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위원님, 좋은 제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지에 가서 꼭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은 보고서에 꼭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저희들 공무국외여행 출장을 가게 되면 대개 정책 입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해 오는데, 겸해서 해당 관련한 지역에 대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관련 답사 예정 지역의 방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그게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보낼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정책 교류에 관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한 답사를 넘는, 아마 좋은 그런, 홍보도 넘고 하는 그런 좋은 의견 같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위원님.

◇ ○○○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일정에 대해서 사실 파리에 베르시 빌라주 같은 경우는 근대 유산 재생도시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보면 ‘아, 조상 덕에 먹고사는 나라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도시 재생을 거기에 맞춰서 큰 변화 없이 굉장히 잘해 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인근에 인프라를 잘 구축해 냈고, 그리고 동선을 아주 잘해 놓은 그런 도시였고, 금요일 하루에 보고 파악하기에는 좀 아까운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금요일보다는 사람 왕래가 많은 토요일, 주말 같은 때에 굉장히 그 동선을 확실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개방하는 그러한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만에 가서서 피곤하실 텐데 다 돌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가는 몽블랑 소방구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파리에 몽블랑 있는 데는 우리나라 산세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가 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산이라고 보고 그렇게 구조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는 뭐가 잘 되어 있냐면 여기 제네바 들어가기 전 입구 거기

서 볼 수 있는 데가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센터가 엄청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교육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번을 정해 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두 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외국인까지 이렇게 하나 했더니 이것은 외국인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을 두고 한다는 개념에서 그것을 안 받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 정도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사전 교육을 많이 강조하더라는 것을 확인 좀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가 미리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은 월요일에 들어가는 ‘무료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 이것은 도로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만큼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다는 것도 느끼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로마에, 이탈리아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파리에 하루를 더 그때 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공간은 그렇게, 이틀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는 파리의 일정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관제센터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엄청 체계적이라서 전 세계가 아마 여기는 많이 그것을 하고, 저희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가서서 진짜 우리도 잘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도시 재생이 되어 있는지, 뭘 근간으로 했는지. 우리도 지금 사실 몰라서 그렇지, 유산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산을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동선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다거나, 이게 법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 쪽도 한번 도출하실 수 있으면 그런 자료도 좀 가져오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각 소방서에 보면 심신안정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방공무원들에게 현장 출동에서 얻은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계속 소방서에 생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

◇ ○○○**위원** ○○○입니다.

가시는 데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세 군데죠?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예.

◇ ○○○**위원** 스위스는 방문지가... 안 보여서.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저희들 일정에 보시면 3월 25일 몽블랑 소방구조대가, 여기가 프랑스 샬모니 지역입니다. 샬모니인데, 여기 몽블랑 소방구조대, 샬모니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열차역이 있는 데가 제네바역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제네바역까지 고속열차로 해서 3시간 반 정도 가서 제네바에서 샬모니 몽블랑 소방구조대를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녁에, 몽블랑 소방구조대 견학을 하고 저녁에 또 숙소를, 샬모니에서 숙소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열악하다 해서 다시 제네바로 해서 가서 숙박을 하시고. 그러니까 스위스 일정은 제네바역하고 그다음에 그날 숙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정이 없습니다. 그냥 경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아, 그냥 경유지로?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예.

◇ ○○○**위원** 가시는 길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2025년부터 유럽에서 국경 탄소세 그래서 우리 경북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포항, 가장 국경 탄소세의 가장 1번이 철강이거든요. 그런데 포항이 가장 지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산업단지가.

우리 경상북도도 지금 신도청에 23만평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의 유희부지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일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런데 실제 유럽 쪽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지금 구미의 국가산업단지에 그린산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영양·청송 풍력을 가지고 와서 RE100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건설소방위가 산단 쪽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포항 철강공단의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 도의 건설국장이십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예.

◇ ○○○위원 건설 쪽에서 산단을 같이하는데. 지금 정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수출 부분이 심각한 게 RE100 탄소 이것 못 맞추면 거의 수출이 안 되는데, 우리 경북이 가장, 갖고 있는 게 철강하고 전자 아닙니까?

그나마 구미는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그린산단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산업부 차관 내려오셔서 서약식도 하고 발대식을 했는데, 구미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경북으로 보면 정말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안 돼요. 철분이 날아와서 패널에 붙어서 효율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력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 신재생에너지를 수소 이야기를 하는데 수소도 그린수소, 레드수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도청에도 하려고 그랬죠? 도청에도 옆에다가 15MW 정도의 수소발전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23만평의 경상북도 신도청 안의 부지에 산단을 짓는다면 여기에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투입해 줄 것인지. 우리가 기업을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를 해 줘야만이, 무슨 이익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작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희부지에서는, 특히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도로 부분이거든요. 도로 부분에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탈리아에서 체네바로 고속열차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예.

◇ ○○○위원 그 부분에서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북은 수출 관련해서는 위기를 좀 느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도에서 정책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좀 엉뚱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부분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희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유럽 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탈리아 도로청 방문을 할 때하고 저희들 파리에서 제네바역 가는 고속열차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조사할 게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서는 우리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대개 제기된 혹은 제안된 내용들을 의회와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오늘 계획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이렇게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좀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에 다른 상임위가 국외연수를 갈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고 때로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일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 준비도 우리 경북이 가장 현실에서 주안점이 되는 도시재생사업 부분, 그리고 소방구조대 특수재난대응 부분, 그다음에 언론사까지 해서 우리 도의 홍보도 하고 또 국제간 교류도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적을 좀 알뜰하고 현실성 있게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들 심사, 국외연수 결과 보고가 있는데 어떤 때는 상임위에서 이 결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 차년도에 갈 때 어떤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건설소방위원회는 2018년도에 이렇게 다녀오셔서 이렇게 결과 보고를 정리를 잘 해 놓으셨네요, 기록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완되게 국외연수 가실 때, 회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가서 변화된 시점, 그때 당시에 대구신공항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진척이 된 것을 이렇게 시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기록을 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상임위보다는 좀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민의 혈세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 최대한 거기 가서서, 분명히 저희 도와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희 도에 적용이 되어서 좀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셔서 알찬 국외연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

◇ ○○○**위원** 혹시 지금 체크를 해 놓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면 번호가 중복 체크된 게 있습니다. 우리 이것 메일로 받은 이 추진계획서 여기 보면 연수 계획, 연수 목적, 세부 일정, 연수자 명단이 있는데. 세부 일정하고 연수자 명단이 같이 3번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고 체크를 못 하셨으면, 메일로 저희들한테 추진계획서 보내준 것, 회의 자료 아니고. 메일로 보내주신 추진계획서에 보면 번호가 3번이 두 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확인 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예.

◇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예.

◇ **위원장** ○○○ 우리 보통 해당 상임위의 출장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대개 그 부분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그다음 번, 예를 들어서 출장 심사에 반영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그게 전체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아마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비단 어느 한 특별한 상임위에 대한 제안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쪽의 상임위에 대해서도 아마 의견 제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오늘 이제 마지막 사실 심사이고,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 다 임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출장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현재 4개의 위원회에 대한 출장 심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사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번 심사위원회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위원회가 출장을 가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심사가 아니고 제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좀 더 좋은 그런 해외 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웬만한 기관에는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 출장 기관에. 여기 나오는 프랑스에 있는 베르시 빌라주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읽고, 못 읽은 것은 그대로 오려다가 번역 프로그램에 돌리면 대체로는 그 안에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대체로 그런 기관들을 좀 이렇게 잘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나와야 될, 조사된 얘기겠지만 경상북도 안에, 일반 도로, 고속도로 안에 터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여기 자료 사진에 몽블랑 아마 터널화재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21세기 바로 직전 들어오기 전, 1999년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기도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근 40년 가까운데. 그래서 사실은 산불, 경북의 경우에는 산불이 대개 제일 큰 문제이고, 그렇지만 터널과 관련해서 여기 119특수대응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일반 응급에 관한 특수대응단이고 하나는 산불만 전담으로 하는데 아마 터널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 그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번 가서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게 아마 12구역인가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1980년대에 사실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근 반세기 가까이 지났는데 여기는 오히려 관광 쪽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 쪽에서, 경남 쪽도, 전북 쪽에서도 여기에 갔다 온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경상북도만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심사를 보면서 몇 년 전인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대한, 심사 요청에 대한 자료가 가장 잘되어 있었다고 늘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자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서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 출장은 아마 상당히 효과적인, 앞으로 정책 입안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 아마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대개 오관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귀가 제일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중동 쪽에서는 귀를 지혜하고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귀가 가장 중립적인 기관 중의 하나이고. 모든 욕심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장 대변하는 기관 중 하나가 눈인데, 사실은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눈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료 사진 보니까 다 보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은 사실은 출장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보라’는 이야기가 거의 모든 단어에 다, ‘한번 먹어봐라’ ‘먹어보아라’ ‘맛보아라’ 모든 기관에 ‘보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자료를,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저것한 기관,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단위가 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셋을 다 충족을 하려 하시지 말고 욕심에, 욕심은 아주 좋은 쪽 욕심입니다. 정책 입안과 관련해서 많이 보시고 깊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말씀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서 조사만 해오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들의 좋은 점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도 한번 삼아보자. 그러면 오히려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민 입장에서는 “혈세를 써서 저 친구들 맨날 똑같은 소리, 똑같은 보고서 내면서 구경이나 다니고” 이런 얘기를 상쇄하고도 남을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소통이 되면 오히려 저쪽 기관에서, “저놈들 또 온단 말이야. 또 와서 괜히 주말에도 오고 와서 때때로 와서 특별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적지 않은 분야에서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안 되니,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을 짧은 시간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단 이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 나중에 다른 위원회에도 앞으로 출장에는 반드시 경상북도의 관련 분야 정책에 관한 홍보도 겸해서 자료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 위원회의 해외출장에 어떤 우리 경상북도의, 해당 지역의 경상북도의 홍보자료를 아주 간단해도 좋으니까, 한 지역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준비를 해서 가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만 마지막 회의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님,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심사과정을 지켜보셨는데 혹 하실 말씀 있으면...

◇ **건설소방위원회부위원장** ○○○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배운 게 많고.

안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이 터널 수를 물어보셨을 때 행감자료 조사할 때는 숫자를 외웠는데 내 머리가 한계를 느끼는구나, 새로운 공부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119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게 봉화에 광산 붕괴사고가 났을 때 안전재난, 경찰, 소방관 이게 모든 지휘체계가

다릅니다. 이번에 여기 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내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석 달 가까이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모이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원 체계로, 그것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고 행정을 돕기 위해서 의회에서 공부하려고 이번에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블랙아이스 때문에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나 속도 이런 것 하는 것도,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다 적었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홍보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몽골 쪽에, 그쪽에 우리가 소방에서 쓰면 시간이 되면 4만 km, 3만km 뛰어도 차를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에. 119 소방, 긴급출동 차가 1억 5천인데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하면 300만 원에 매각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지금 대사관하고 협의 중인데 “매각할 것 300에 매각하지 말고 몽골 쪽에 기증을 해라.” 거기에 우리 차가 가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임대 기간이 되고, 그리고 300만 원보다 더 이미지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방을, 물건을 구입해야 되면 우리가 수출산업도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선제 대응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소방본부에 지시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것도, 저는 예산을 이번에 줄 때 받고 난 뒤에 주라 했는데 이 상황이 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교육을 선제 대응해서 한다는 것을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고. 또 도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재생도 알았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은 제가 필히 가서 공부를 해오겠고.

그리고 포항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억 수출입니다. 100억불이고, 대구가 100억불이고 구미가 300억불입니다. 달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 37조 원을 수출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재생을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말씀처럼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를 재생하는 사업에 뛰어 들어서 지금 국가, 시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어떻게 재생을 하려고.

앞으로도 더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경청해서 메모하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저희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검토해서 가결 여부를 지금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출석 위원 5명, 찬성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교적 충실하게 조사가 되고 또 앞으로 정책 입안을 위한 아마 충실한 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 임기 내에 위원회를 마칠 수 있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간사**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아낌없는 조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